

# SK, SK글로벌 출자전환 10월 실시?

채권단 협의 거친 내부방침 시사 ... 전제조건 충족 없이는 명백한 배임

SK가 SK글로벌에 대한 매출채권 8500억원 출자전환을 10월 중순께 실시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SK 고위 관계자는 9월1일 “6월15일 이사회 때 결의한 SK글로벌에 대한 매출채권 8500억원 출자전환을 10월 중순께 실시키로 내부 일정을 잡고 있으며, 채권단과도 협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SK 관계자의 이러한 언급은 6월 이사회 때 출자전환을 결의하면서 내건 6개항의 전제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SK 관계자는 “전제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2차 이사회를 꼭 개최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 내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공식 이사회를 개최해 전제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 회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의 발언은 필요에 따라서는 공식 이사회 대신 비공개 이사진 간담회나 정족수에 해당하는 이사들의 구두동의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전제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SK 이사회는 SK글로벌에 대한 8500억원 출자전환 등을 결의하면서 ▷SK글로벌 경영정상화 계획과 관련한 SK텔레콤 이사회의 승인과 대표이사의 서명이 완료된 협약서 ▷신규채권에 대한 SK글로벌의 담보제공 등 충족이 쉽지 않은 전제조건을 내걸어 충족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SK의 최대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과 SK 소액주주연합회 등은 “전제조건 충족 없는 8500억원 출자전환은 명백한 배임”이라며 임시주총을 통한 이사진 해임 및 소송제기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Chemical Journal 2003/09/02>